

# 심하전투

## 명(明)·청(靑) 교체의 틈바구니에서

1619년(광해군 11) ~



### 1 심하전투(深河戰鬪)라는 명칭의 유래

심하전투는 1619년(광해군 11) 3월 누르하치(奴兒哈赤)를 정벌하기 위해 출병한 명과 조선의 연합군이 후금군에게 패한 사건을 이른다. 심하전투는 심하 전역(深河之役) [관련사료](#), 기미년 전역(己未之役) [관련사료](#), 혹은 기미년의 심하 전역(己未深河之役) [관련사료](#)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전투를 중국에서는 사르후 전투라고 하는데 이는 패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두송(杜松)이 전투 끝에 전사한 장소가 사르후(薩爾滸)이기 때문이다. 심하는 제독 유정(劉綎)이 지휘하는 명군과 강홍립(姜弘立)·김경서(金景瑞)가 지휘하는 조선군이 후금군과 처음 접전한 지역이다. 이 전투에서 명군과 조선군은 소규모의 후금군을 상대로 싸웠는데, 적지 않은 전과를 올렸다.

[관련사료](#)

## 2 건주여진의 추장 누르하치 세력을 확장하다

17세기 초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는 변동이 찾아왔다. 건주여진의 추장 누르하치가 만주(滿洲) 일대의 여러 여진족을 제압하면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건주여진은 건주위·건주좌위·건주우위 등 세 갈래로 구성되어 있었고, 명의 요동도사의 통제를 받았다. 명은 건주여진의 여러 추장에게 직접과 교역권을 주어 통치 질서 안에 두고자 했다. 그러나 16세기 말 여진 내부에서 부족 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명의 지배력도 약화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임진왜란(壬辰倭亂)도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야기한 원인이었다. 이 전쟁에는 조선과 일본 뿐 아니라 명도 참가하여 국력을 소모하였다. 누르하치는 1593년(선조 26)해서 4부와 9개의 여진·몽골 부족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정복 활동을 잠시 중단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누르하치는 활동을 재개하여 1613년(광해군 5)에 이르기까지 여허를 제외한 해서여진을 모두 병합하였다. 박승종의 아들 박자흥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 누르하치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홀온(忽溫)을 복속하고 여허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몽골과는 혼인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관련사료](#)

한편, 조선은 임진왜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두만강(豆滿江) 일대에 위치한 변호(藩胡)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육진의 변호들은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조선의 변방을 침입하였는데 당시 무신이었던 정현룡(鄭見龍)이 병졸들을 수습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관련사료](#)

또 조선은 만주 내지의 홀온과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이들은 누르하치와 적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세는 복잡하게 돌아갔다. 조선은 1603년(선조 36)부터 1605년(선조 38)에 이르기까지 홀온의 군대와 공방을 지속하다가 홀온의 추장 하질이(何叱耳)에게 직접을 주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사관의 표현을 살펴보면 조선에게 굴욕적인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관련사료](#)

그러나 홀온의 군대가 1608년(광해군 즉위) 오갈암(烏碣巖)에서 크게 패전하게 되면서 조선은 누르하치의 세력을 절감하게 되었다. 건주위의 호추 누르하치가 홀라온과 종성 오갈암에서 크게 싸워 대파시켰다. 누르하치는 이 과정에서 함경도 육진 가운데 하나인 경원의 성문 앞까지 지나 다니면서 조선 경내를 횡행하여 반발을 샀지만 조선군은 그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손을 쓰지 못했다. 이 오갈암 전투 이후 조선은 누르하치의 군사력을 절감하였다. [관련사료](#)

한편, 요동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던 명은 건주여진의 위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가하지 못했다. 누르하치가 계속 명의 관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은 양응룡, 김덕시 등의 내부 반란에 여념이 없어 이들을 제압할 여력이 없었다. 양응룡은 묘족을 이끌고 수차례 반란한 인물이다. 조선에 들어왔던 장수들도 양응룡의 토벌에 동원되어 귀국하기도 했다. [관련사료](#)

또한 절강에서는 조고원이라는 인물이, 요동일대에서는 김덕시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명에는 내부 반란이 적지 않았는데, 조선도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있었다. [관련사료](#)

명은 점차 요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누르하치의 성장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

### 3 누르하치, 명에 선전포고를 하다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 안에서 건주위는 오랑캐이면서도 '신하'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누르하치의 일가도 명의 신하였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명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작은 무리의 추장이었다. 이들은 요동 총병 이성량(李成梁)의 후원을 받는 입장에 있었고, 실제로 무순을 통해서 명과 교역했다. 이성량은 매우 오랜 기간 요동에 총병으로 있었다. [관련사료](#)

특히 이성량은 누르하치와 경쟁관계에 있던 하질이 즉, 부잔타이를 이용해서 이들을 통제하였는데 누르하치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두 세력이 협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전처럼' 누르하치가 보낸 사절을 후대하며 미처 경계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련사료](#)

또한 요동 총병 이성량은 오히려 누르하치를 후원하여 요동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누르하치의 성장을 도와주게 되었다. [관련사료](#)

그런데 누르하치와 명 사이에는 근본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다. 1583년(선조 16) 명이 건주여진의 내분에 끼어들었다가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만포 첨사 장후완의 보고에 따라 작성된 평안 병사 김경서의 장계에는 누르하치의 입장이 담겨져 있는데 이 장계에 따르면 누르하치가 중국에 원한을 가진 이 같은 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관련사료](#)

이 사건이 벌어지자 누르하치는 명에 대해 '불공대천의 원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죽음의 대가로 교역권을 의미하는 칙서 30통과 말 30필을 받아내고 도둑이라는 직함도 승계하였다.

누르하치는 만주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명과 표면적으로는 정치·경제적인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누르하치는 명의 직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북경에 입조하기도 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원병의 파견을 제의하여 충성심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누르하치가 명의 요동 도사를 통해서 조선에 파병 제의를 하자 조선 조정은 크게 당황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보인다. [관련사료](#)

이와 같은 행동은 이때까지 동아시아에서 명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누르하치에게는 이에 정면으로 도전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르하치는 내부 정복 활동에 힘을 기울여 해서여진을 집중적 공략하여 하다부는 1599년(선조 32)~1601년(선조 34), 호이파부는 1607년(선조 40), 올라부는

1613년(광해군 5)에 병합하였다. 이로써 누르하치는 여허부를 제외한 해서 여진 전체를 장악했다.

누르하치는 1616년(광해군 8)에 국호를 후금, 연호를 천명으로 정하여 공식적인 독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1618년(광해군 10)에는 일곱 가지의 큰 원한[七大恨]을 내세워 명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7대한은 조선에서는 '칠종뇌한'이라고 일컫는데, 의미는 같은 것이다. 누르하치가 정음정을 통해 조선에 전한 서신으로 칠대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사료](#)

누르하치는 하늘에 제사한 뒤, 군대를 이끌고 1618년(광해군 10) 4월 무순(撫順)을, 7월 청하(淸河)를 점령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 4 명, 누르하치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에 군대를 요구하다

누르하치가 명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자 명에서는 양호(楊鎬)를 요동 경략에 임명하고 정토를 준비했다. [관련사료](#)

명은 자신들의 병력을 과장하여 후금의 기세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실제 병력은 10만 내외였다. 경략 양호는 해서 4부 가운데 이 시점까지 누르하치에 의해 병합되지 않았던 여진과 조선의 군대를 징발하기도 했다. 특히 건주위 정토가 명뿐 아니라 조선의 일이기도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사료](#)

양호는 군대를 4방면으로 나누어 진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목표는 후금의 수도인 허투알라(赫圖阿拉, 이후의 興京)로 삼았다.

명은 1619년(광해군 11) 4월 무순의 함락 이후 조선 측에도 방비를 지시하고, 유사시에는 병력을 조발하여 도울 것을 요구하였다. 명이 조선에 병력을 징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1613년(광해군 5) 누르하치가 군대를 이끌고 두만강 이북의 울라부를 병합하자,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명은 조선에 1만의 포수(砲手)를 징발하여 의주에 집결시켜놓고 대비하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비변사에서는 중국이 누르하치를 정토할 것인지 논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주에 군대를 모아 놓고 대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사료](#)

조선은 이 때 명의 요구에 따라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1만의 포수를 징발하고, 평안 병사로서 부원수를 겸한 이시언(李時言)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징발한 1만여 병력 가운데 9,500명이 평안도와 황해도의 병력이며, 나머지 500명은 개성과 경기도, 강원도에 분정하였다.

[관련사료](#)

1614년(광해군 6)에는 후금이 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과 조선 양측이 모두 군사적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1618년(광해군 10) 누르하치가 명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명의 무순을 공격하자 이를 묵인할 수 없었다.

명이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내세워 징병을 요구하자, 조선은 이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누르하치의 세력 확장은 명뿐 아니라, 조선의 입장에서조차 심각한 위협이었다. 후금의 군사력이 매우 막강하여 방어 태세의 마련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세조대에 황제의 칙유를 받고 출병하여 건주위의 추장 이만주(李滿住)를 살해한 바 있어 건주여진이 자신들을 적대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누르하치가 조선에 파병 제의를 한 데에 대해 조선은 이만주가 세조 연간의 정토 당시 조선군에 의해 죽음으로써 건주위가 원한을 품고 있다고 보았다.

[관련사료](#)

조선에서는 명의 징병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후금의 군사력이 막강하므로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조야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준 은혜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탓에 명의 징병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세였다. 박홍구, 유희분 등의 대신들은 명과 조선이 군신이자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를 입었으므로 어렵더라도 군대를 징발하여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련사료](#)

임금이었던 광해군(光海君)은 이에 대해 보다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턱대고 출병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비변사의 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광해군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만전을 기해 출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했으나, 명의 경략 양호의 질책을 받고 출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각도에서 병력을 조발하는 한편, 1614년(광해군 6)의 조병절목(調兵節目)에 따라 1만의 병력을 징발하여 배치하게 되었다. 광해군은 출병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포수 1만을 기준으로 내세운 양호의 계획에 따라 1만 군사를 징발하고 도원수로는 강홍립을 선발하여 인솔하게 하였다. 또 출병 이후 약화될 수밖에 없는 방어 태세를 보완하기 위해 우치적(禹致績)을 순변사로 임명하여 평안도로 보내었다.

[관련사료](#)

1619년(광해군 11) 2월 21일 요동 경략 양호는 4로군의 장수들을 모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출정하였다. 4로군은 남로·북로·서로·동로 등을 의미하는데, 서로군은 산해관 총병 두송, 남로군은 요동 총병 이여백, 북로군은 개원 총병 마림이 이끌었고 강홍립과 김경서가 이끄는 조선군 1만 3천은 지휘관인 총병 유정의 9천 군사와 함께 동로군에 편제되었는데, 4로군의 총병력은 10여만 명이었다.

양호의 이러한 전략은 그러나 서로군의 지휘관인 두송이 전공을 탐내어 성급히 진격하다가 3월 1일에 사르후에서 전군을 잃고 자신도 목숨을 잃는 상황에 발생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3월 2일에는 마림의 북로군이 기습을 받아 대패하였는데, 마림은 불과 5~6명의 기병과 함께 개원으로 도망하였다. 조선군이 포함된 동로군은 3월 4일 부차(富車)라는 지역에서 후금군의 공격을 받아 대패하였는데, 이 때 유정은 화약 위에 앉아 자살하였다.

[관련사료](#)

이 소식에 놀란 경략 양호가 격문을 보내어 이여백의 남로군을 회군시킴으로써 사르후 전투는 후금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심하 패전 당시 조선군은 보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행군을 하여 지쳐 있었고, 추위로 인해 전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조선군은 3월 4일 부차에서 김응하(金應河) 등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패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 때 강홍립은 중영을 이끌고 인근의 산에 올라 진을 쳤는데, 후금 측에서 항복을 종용하자 패잔병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관련사료](#)

## 5 패전 이후 누르하치가 요동을 장악하다

조선은 심하전투에서 패전한 이후 적지 않은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선 강홍립과 김경서가 투항하면서 조선군 수천 명이 포로가 되었다. 출병한 조선군이 사실상 모두 죽거나 포로가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조선은 평안도 일대의 방어를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한편, 사르후 전투에서 승리한 후금은 요동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후금은 전투 직후 진격하여 1619년(광해군 11) 6월에는 개원, 7월에는 철령 등을 점령하고, 마침내 여허를 병합하여 여진 전체를 장악했다. 누르하치는 명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1620년(광해군 12)에는 무순을 점령하고 1621년(광해군 13)에는 심양과 요양을 점령하여 요동을 장악했다. 그리고 1622년(광해군 14) 1월에는 마침내 요하를 건너 광녕을 점령하는 데에 이르렀다. 명은 후금에 대한 방어에 힘을 기울였지만 끝내 요동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써 조선과 명의 육상을 통한 연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